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	2023. 8. 22.(화) 11:00 < 8.23.(수) 조간 >	배 포	2023. 8. 22.(화)

상반기 조선산업 수출 및 수주 고공행진

- (상반기 수출) 전년 동기 대비 11.9% 증가한 92.2억 불 달성
- (상반기 수주)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87% 점유로 세계 1위 수주잔량 3,880만CGT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'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.9% 증가한 92.2억불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. 이는 '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,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.

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%*를 차지하였으며,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%, 50%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하였다. 특히,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%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하였다.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,880만CGT**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. 선가지수***는 170.9로 '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, 특히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은 2.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.

* 수주량(만CGT/%) : ('20) 828/32 → ('21) 1,764/33 → ('22) 1,559/37 → ('23.6) 516/29
** 수주잔량(만CGT) : ('11) 3,988 → ('14) 3,351 → ('17) 1,752 → ('20) 2,066 → ('23.6) 3,880
*** 선가지수 : ('08) 178.0 → ('12) 126.4 → ('16) 122.6 → ('20) 125.6 → ('23.6) 170.9

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*이 감소하고,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.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'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.

* 전 세계 발주량(만CGT) : ('20) 2,601 → ('21) 5,362 → ('22) 4,204 → ('23.6) 1,796

한편, '23.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%*를 수주하여 2월 이후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하였다. 7월 실적을 포함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주는 30%, 고부가 선박은 59%, 친환경 선박은 51%를 점유하였다.

* 국가별 '23.7월 수주량(만CGT/%) : (한) 146/44, (중) 113/34, (일) 61/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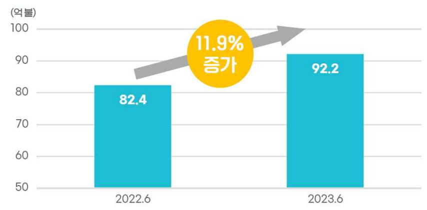
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및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박 기술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생산인력 수급,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	송현주 (044-203-4330)
	조선해양플랜트과	담당자	사무관	문형태 (044-203-43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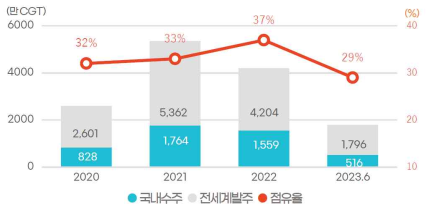
참 고 | **조선산업 주요 지표**

1. '23년 상반기 (7.3일 클락슨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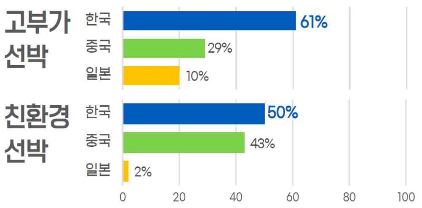
✓ 수출실적 11.9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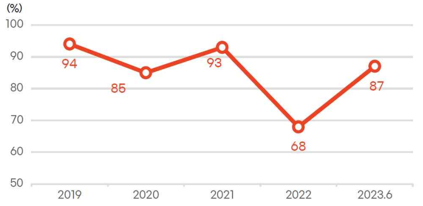
✓ 전세계 발주량의 1/3 가량 수주



✓ 고부가·친환경 선박 점유율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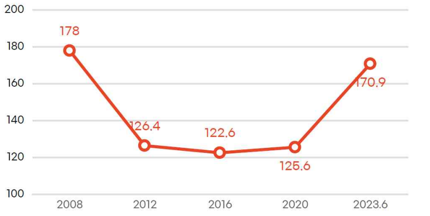


✓ 특히 LNG 운반선은 87% 점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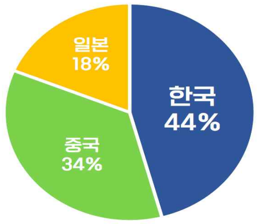
✓ 수주잔량 12년만에 최고 수준

✓ 선가지수 '08년 이래 최고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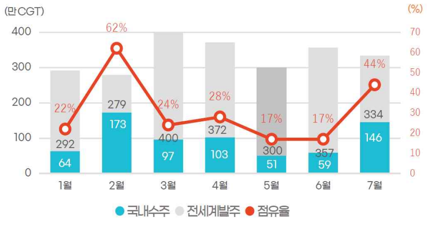


2. '23.7월 (8.2일 클락슨 기준)

✓ 전세계 발주량의 44% 수주



✓ 월별 수주량 세계 1위 탈환



新성장 4.0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